

就業婦人の 스트레스원, 内外統制性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essors,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of Employed Wives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고 은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 Eun Sook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Kim Myung Cha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VI. 결론 및 제언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valuated by using ready prepared questionnaires consist of items including perceived stressors,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to classif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due to occupations and ages.

The sampling groups ranges from 20 generations to 50 generations employed wives living with husband and children dwelling in Seoul. Finally, the sampling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number of 412.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1) All employed wives feel less perceived stressors but more perceived stressors for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s, overload of housework, willingness of stop of employment by their parents of both families, economic expenditures, and various problems in work places.

(2) There appear significant differences for perceived stressors and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due to the occupations and the ages of employed wives. Otherwise

the locus of control appear clear differences due to the ages only. the more perceived stressors and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appear for laborious and service occupation than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occupation.

(3) The variables related to physical distress and mental distress are occupation, age, marital status and work allocation of housework, relationship with childrens and relationship with kinship.

I. 서 론

산업화를 주축으로 한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거 어
느때 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가족생활의 모
든 면에서 가속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
의 하나로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인적구성은 29세
이하의 미혼 연령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결혼과 함
께 퇴직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최근에 와서는 중,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기혼 여성 근로자의 현저한
증가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제기획원의 '경제활동 통
계연보'에서는 1987년의 여성취업자는 전체취업인구
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혼여성의 비율
은 62.2%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이러한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은 자신의 성장과 가
정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게 되었으나, 반면 가정생활
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정신, 신체적 불건강을 겪게되
었다.

더구나 이러한 취업부인의 정신, 신체적 건강은 가
정생활의 질적향상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의 원인규명과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지만 취업부인에 대한 스트
레스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취업부인 일지라도 각 직종과 연령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내용과 인지수준, 적용
을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다룬 연구는 몇편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취업부인의 직
종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와 디스트레스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며, 동시에 개인의 반응이 디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반응을
나타내는 성격변인 중 가장 대표적인 내외통제성을
조사함으로써 내외통제성에 따른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인지 및 디스트레스
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
업부인의 내외통제성이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여 개인의 특성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및
가정생활에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그 중요성을 둔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취업부인의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는 가정이라는 장에서 가족생활 사건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위협이며, 가족원에
의해 인지되는 곤란정도 및 정서반응을 일컫는 말이
다. (정민자 1983)

가족스트레스 모델은 Hill 의 ABCX 모델을 기초
로 Burr, Mucubbin이 수정한 모델이 있다. Mccubbin
의 Double ABCX 모델을 살펴보면, 이 모델은 위기
전 변수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시킨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로써 스트레
스 요인이 위기를 일으키고 난 후 이 위기에 대한
지각, 가족의 자원, 대응방식에 따라 가족의 순적응
과 부적응의 결과가 표출된다는 것이다.

우선 취업부인의 가정내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 중
부인의 역할갈등과 남편의 지지 정도에 따른 스트레
스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취업함에 따라 가정과 직

장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이동원 1976 : 정혜정 1985 : 이종목 1991), Richardson의 연구(1979)에서도 남편보다 높은 직업지위를 가진 취업부인은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에 따라 결혼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으리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부인의 취업에 대한 이해나 지지, 즉 남편이 아내의 취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둔 경우 남편의 가사에 대한 도움정도에 따라 부인의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관리될 수 있다고 한다.(Houseknecht, Vaughan & Macke 1984)

다음에 어머니 역할에 따른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전영자(1991)는 전문직 취업부인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Ritchie의 연구(1992)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취업부인은 자녀양육에 즐거움을 느끼지만 비취업부인에 비해서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였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부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Emmons, Biernat, Tiedje, Lang & Wortman 1989)

그러나 Hoffman의 연구(1982)는 이와는 달리 취업에 있어 어머니 자신이 직업에 만족하며 이중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어머니가 비취업 어머니에 비해 긴장을 느끼지도 않고 어떤 상황하에서도 잘 대처 한다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또한 취업부인의 가사노동에 있어 가족은 전혀 협조나 지원을 하지않음으로써 취업부인들은 가사노동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Davey & Paolucci 1980)

한편 김정숙(1988)은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집안의 많은 행사들이나 친척들에게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때 취업부인은 전혀 관련없이 지낼 수 없다고 추측되며, 설령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계하지 못하더라도 의식속에서는 항상 시댁이나 친척간에 생기는 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취업부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밖에 있어서 부인의 취업은 부인의 가사와 여가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부인의 소득으로 증가된 가족 수입은 가사노동을 줄여줄 수 있는 시장상품들의 구입, 직업과 관련된 지출, 육아, 맞벌이 부부들에 관

련되어진 사항에 쓰여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부인의 가족은 다른 요소들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비취업부인의 가족에 비하여 수입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높다고 제시되었지만 입증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였다.(Foster & Metzner 1981)

그러나 취업에 따른 가사조력자에 대한 지출등과 같은 부수적인 지출이 늘어가는 것은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관한 취업부인들의 스트레스 인지유무에 대한 연구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원으로 는 물리적환경(조명, 소음, 온도), 개인수준(역할갈등, 작업과적), 집단수준(지위불일치, 집단내갈등), 조직수준(직무수준, 조직풍토), 가족관계, 주거지, 계급등이 있는데 Gore와 Eckenrode의 연구(1989)에서는 취업부인은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서로 가족과 직업의 역할에 따라 야기되는 것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취업부인 자신과 그들가족의 복지에 있어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스트레스를 연구함에 있어 직업생활에서 생기는 직무스트레스원을 함께 연구해야 함을 시사케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부인은 부인역할과 어머니역할에 따른 갈등 가사노동의 부담, 친척이나 시댁과의 문제, 경제적 지출문제등이 중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취업부인은 이러한 다중역할에 따른 스트레스원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이러한 스트레스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취업부인 전반에 관한 스트레스원과 인지를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관계

스트레스의 원인 규명 못지않게 스트레스의 예방 관리도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원을 확인하기가 쉽지않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존재할지라도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적효과가 달라 지므로 스트레스에 따른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성

적통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외통제성이다.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의 개념은 사회학습 이론으로부터 그 개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강화의 한 측면이 내외적 통제의 일반화된 기대를 증가시키고 일반화된 기대는 미래의 강화에 따른 특수한 행동이나 사건을 이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었다. (김현수 1991)

Rotter(1966)는 환경적인 강화물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보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제안하면서 사건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을 내적통제자로, 사건이 운명, 행운, 우연, 또는 강력한 타인에 의한 결과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을 외적통제자로 개념화 하였으며,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내외통제에 따른 행동특성에 대해서, Gilmor(1978)는 대인관계에서 내적통제성을 가진 사람이 외적통제성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였으며, 황치석의 연구는(1988) 외적통제자는 내적통제자에 비하여 사회성이 높으며 주변상황에 더 민감하다고 하였다.

한편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tephen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1978)에서 외적통제자가 내적통제자에 비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Johnson과 Sarason(1978)은 부정적 생활변화와 우울, 불안 측정치간의 정적관계는 외적통제에서만 나타나며 내적통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Kobasa(1979) 역시 외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질병간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내외통제성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Strickland(1978)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에 비하여 정서적 장애가 없고 자신들의 생활상황에 만족하며, 외적통제자는 불안, 우울, 부적응 및 정신과적인 진단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내외통제성은 건강행위와 태도를 예측하기 위한 절대적 요인이기 보다는 많은 복합요인들 중의 하나에 불과

하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환경이나 기타 상황에 따른 통제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조건하에서도 위협이나 긴장을 적게 받으며 이에 따른 지나친 불안이나 우울등의 부적응적인 디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외통제성은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부적응적인 효과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취업부인의 디스트레스

(1) 디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로 구분되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긴장과 수행을 감소시킨다. (이평숙 1984)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개인에게 즐거운 기분과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유익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파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려는 사람에게 역효과를 가져온다. (Bell 1977)

이렇듯 스트레스는 상황의 조건에 따라 심리적 성장이나 창조적 활동을 제시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능력한계가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말하므로 흔히 디스트레스와 스트레스는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스트레스를 신체화, 불안, 우울등의 영역이 포함되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연구(김영철, 정향균, 이시형 1989 : 김창수, 정성덕 1989 : Walker & Walker 1987)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디스트레스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생각해도 무리는 없으며 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과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는 디스트레스만을 보고자 한다.

(2) 취업부인의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Redloff 1975 : Pearlin & Johnson 1977)들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미혼남녀나 혹은 기혼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인들은 가정내의 중추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인역할과 현대에서 요구하는 부인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증 발병율에서는 남성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규명하는데 Gore와 Mangione(1983)은 성차를 중심으로 부인이 수행하는 역할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초점을 둔 사회역할 이론과 성격역할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사회역할 이론(Social-Role Theory)이란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에서의 남녀간의 차이가 각 성이 차지하는 역할 또는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접근방식이며, 반면 성격역할 이론(Sex-Role Theory)은 남녀간에 역할요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성에 따라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는 차이가 난다는 견해이다.

이 이론들에 의거하여 기혼부인 중 취업에 따른 디스트레스는 두가지 견해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취업에 따라 디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Pearlin(1975)에 의하면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는 직업이나 집 외부의 일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들의 부딪치는 과도한 작업량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남편의 도움등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부인이 취업을 하면 이러한 가정내의 역할보다 직업역할에서 큰 만족을 얻음으로써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Kessler(1982)도 부인의 취업은 부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효과가 있어 디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며 남성들과 비슷한 정도의 정신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취업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였다.

둘째, 취업은 기혼여성의 디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주장이다.

취업부인은 가정역할과 직장역할을 양립함에 따라 과도한 역할부담을 느끼므로 주부가 취업에서 얻는 정신건강의 이득은 상쇄되어 오히려 더 높은 디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앞의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언급 했듯이 취업부인은 어머니 역할과 아내, 며느리 역할, 직업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많은 역할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취업부인의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디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가 되며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노동시장에서 인장받지 못하는 고통은 취업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4. 직종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 및 디스트레스

(1) 직 종

직업지위가 높은 전문직 취업부인이 서비스직등의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와 우울, 불안등의 디스트레스가 낮다는 견해와 반대로 더 높다는 견해가 있다. 우선 취업부인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김영철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9)에서는 직업이 전문화 될수록 경제적 이윤보다 오히려 개인의 성장이나 사회적 성취욕같은 심리적 취업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여 전문직 취업부인은 불안과 우울성향이 다른 직종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Henslin의 연구(1980)에서도 전문직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원 인지와 디스트레스가 타 직종보다 특히 더 심각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차봉석, 박종구(1986)는 열악한 노동조건, 불리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불안성향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이평숙(1984) 역시 서비스직, 생산직, 행정관리직, 판매직, 사무직 순으로 스트레스량이 많고 이에 따른 정신, 신체건강도 좋지 못하다고 하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직종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와 디스트레

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일관된 결과가 없으므로 직종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 연 령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평숙(1984)은 성인초기(19~29)에서 성인후기(45~65)로 진행 할수록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수준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경아(1990) 역시 연령증가에 따라 스트레스는 높다고 하였다.

김영철과 그의 동료들(1989)은 40대는 과도한 일상업무와 생활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의 인지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우울, 불안등의 심한 정신증상으로 고생하지만 50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증상이 낮다고 하였다.

40대의 스트레스의 인지수준과 디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이시기에 발생하는 만성 성인병, 위궤양등의 질병이 곧 스트레스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고,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적 노쇠와 외모의 변화로 인한 자존심의 상실에서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 또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와 디스트레스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과 이에 따른 인지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는 직종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것인가?

<연구문제 3>

취업부인의 내외통제성은 직종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것인가?

<연구문제 4>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이며, 직종과 연령, 내외통제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것인가?

<연구문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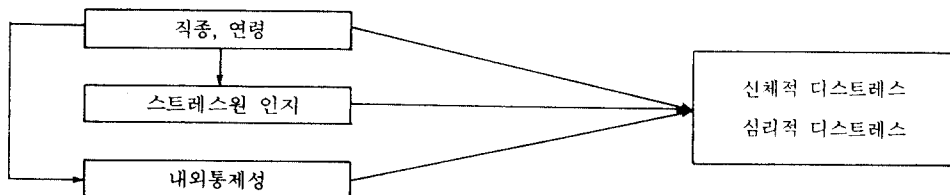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즉 연령, 직종,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 및 내외통제성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작성하였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총 66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생활사건 경험유무에 따른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척도, 내외통제성척도, 신체적 디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그림 1> 연구모형

각 척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원 인지척도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척도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원은 McCubbin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1979) 척도, 이평숙(1984)의 생활사건척도, 안선영(1987)의 역할갈등척도를 모체로 우리나라 취업부인이 취업함으로써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 수정하여 33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하였다.

취업부인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은 문치구(1987)의 직무스트레스척도를 모체로 비교적 적절한 8문항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1차로 선정된 총41문항으로 구성된 가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요인분석등을 실시한 결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사부담문제, 친족과의 문제, 경제적 지출문제, 직무문제의 6개요인의 33문항이 채택 되었으며 각 이젠 값은 모두 1:0 이상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균점수는 1점에서 5점범위로 환산하였다. 이때 점수가 3점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내외통제성 척도

내외통제성 척도는 Rotter의 I-E척도(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를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이 번역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을 모체로 취업부인에게 적절하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여 16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한 결과 15문항이 채택되었고 여기에 조사자가 문항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구 문항 3문항을 더하여 18문항이 작성되었다.

각 문항의 채점방식은 0점이고 그렇지 않고 내적 통제성 문항에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3) 디스트레스 척도

디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15개 문항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 15개 문항은 김광일(1985)의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모체로 한 조희선(1991)의 디스트레스 척도를 참고로 선정, 작성하였다.

먼저 15개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디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2개 요인의 15개문항이 채택되었다.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인별 척도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스트레스원척도	부부관계	7	.94
	자녀와의 관계	7	.92
	가사부담 문제	5	.88
	친족과의 관계	5	.92
	경제적지출 문제	5	.79
	직무문제	4	.82
전체		33	.86
내외통제성 척도		15	.50
디스트레스척도	신체적디스트레스	6	.87
	심리적디스트레스	9	.84
전체		15	.89

(4) 직 종

직종은 홍두승(1984)의 직업분류에 의한 척도와 노동부(1985)의 기혼여성의 취업현황에 대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직업을 5개 종류, 즉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전문, 관리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2. 척도의 신뢰도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부인으로 남편과 첫자녀의 연령이 만5세이상인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2년 3월 2일~10일 사이에, 해당 취업부인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 수정하여 1992년 3월 16일~4월 6일, 4월 25일~29일 사이에 강남과 강북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중 취업부인을 선정하였으며, 대치동 S.E아파트에 출퇴근하는 파출부직의 취업부인, 모건동의 직업소개소의 취업부인등을 대상으로 690부의 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412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표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및 연구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법, 상관분석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의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도 <표 2>와 같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경험빈도 및 인지에 대한 일반적경향

취업부인의 역할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원에 따른 인지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표 3), 어머니의 직장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귀가 후의 과중한 가사부담, 가사일에서의 도피희망, 양가부모님의 부인의 취

업중단 희망, 외출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한 과다한 지출, 교통비의 과다한 지출, 노동량에 비해 부족한 보상체계, 출퇴근시간, 휴가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 근무환경의 불만에 관한 문항에서 취업부인은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부인은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가사부담, 경제적 지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한 선행연구 조희선(1991)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취업주부는 전반적으로 역할갈등을 수반하는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원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가사부담, 경제적 지출 직무에 관련된 스트레스원에 있어서는 다른 스트레스원에 비하여 인지를 높게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직종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

(1) 직종과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직종과 연령별로 스트레스원 인지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① 직 종

직종에 따른 스트레스원의 인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하위영역 별도로 6요인 모두에 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각 직종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를 살펴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의 취업부인이,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의 취업부인이 각기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의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부담 문제의 영역에서는 판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이 단순노무직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족과의 관계는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의 취업부인이 다른 직종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았다.

이외에도 경제적 지출문제는 판매직, 사무직 및 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 = 412)

변 인	집 단	빈 도	백 분 율
연 령	20 대	54	13.1
	30 대	152	36.9
	40 대	145	35.2
	50 대	61	14.8
결 혼 직 수 년 수	5년이하	22	5.3
	6~10년	117	28.4
	11~15년	96	23.3
	16~20년	75	18.2
	21~25년	53	12.9
	25년 이상	49	11.9
총 교	없 다	149	36.2
	기 독 교	113	27.4
	천 주 교	53	12.9
	불교, 유교	97	11.9
가 족 수	3 명	46	11.2
	4 명	167	40.5
	5 명	144	35.0
	6명이상	55	13.3
부 인 직 업	단순노무직	48	11.7
	서 비 스 직	75	18.2
	관 매 직	80	19.4
	사 무 직	109	26.5
	전문·관리직	100	24.3
가 사 조력자 유 무	유	248	60.2
	무	164	39.8
가 사 조력자 유인경우	가정, 파출부	80	32.3
	남 편	14	5.6
	자 녀	66	26.6
	부모님, 친척	88	35.5
남편직업	무직, 은퇴	18	4.4
	단순노무직	41	10.0
	서 비 스 직	38	9.2
	관 매 직	53	12.9
	사 무 직	211	51.2
	전문·관리직	51	12.4
가 정 의 월 소 득	60만원이하	100	24.3
	61~100만원	111	26.9
	101~140만원	90	21.8
	141~180만원	48	11.7
	180만원이상	63	15.3

〈표 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경험유무 및 스트레스원인지

(N = 412)

요 인	스트레스원	경험 유 무		스트레스	
		빈도	백분율	평균	SD
1 요인 부부 관계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불화	406	98.5	2.74	1.26
	부부간의 대화부족	410	99.5	2.60	1.34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불만	403	97.8	2.84	1.30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이해와 관심 부족	407	98.8	3.08	1.41
	바쁜 직장과 가정생활로 인해 남편에 대한 시중부족에서 느끼는 부인의 부담감	402	97.6	2.81	1.37
	부인의 직업에 대한 남편의 지원부족	399	96.8	2.62	1.34
	남편의 부인의 취업중단희망	396	96.1	3.10	1.56
	전 체			2.83	1.22
2 요인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의견충돌	403	97.8	2.93	1.34
	자녀의 성적불량과 진학 실패	374	90.8	2.93	1.70
	어머니의 직장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399	96.8	3.21	1.45
	자녀의 중요한 시험 실패	308	74.8	2.87	1.72
	자녀의 품행이 불량	387	93.9	2.82	1.55
	자녀의 늦은 귀가시간	396	96.1	2.99	1.52
	자녀의 교우관계 불량	360	87.4	2.49	1.61
전 체			2.75	1.23	
3 요인 가사부담 문제	남편의 가사합조 부족	411	99.8	2.93	1.21
	가사일로 인해 귀가시 부인이 느끼는 부담감	401	97.3	2.99	1.45
	귀가후의 과중한 가사부담	412	100.0	3.84	1.20
	가족원간의 가사분담 부족	411	99.8	2.76	1.37
	가사일에서의 도피 희망	412	100.0	3.77	1.23
전 체			3.26	1.10	
4 요인 친족과의 관계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시댁식구와의 불화	405	98.3	3.00	1.40
	부인의 취업으로 인한 친정식구와의 불화	397	96.4	2.54	1.48
	부인의 가정내 역할소홀로 인한 시부모와의 의견충돌	400	97.1	2.86	1.38
	시부모의 부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410	99.5	3.04	1.31
	양가부모님의 부인의 취업중단 희망	403	97.8	3.15	1.44
전 체			2.96	1.25	
5 요인 경제적 지출문제	가사조력자에 대한 과도한 지출	331	80.3	2.92	1.53
	직장동료, 상사의 경조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	394	95.6	3.07	1.32
	외출에 필요한 물품(화장품, 의복등)의 구입을 위한 과도한 지출	412	100.0	3.48	1.29
	교통비의 과도한 지출	412	100.0	3.79	1.12
	외식비의 과도한 지출	412	100.0	2.99	1.28
전 체			3.05	1.96	
6 요인 직무 문제	노동량에 비하여 부족한 보상체계	412	100.0	3.21	1.13
	출·퇴근시간, 휴가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	408	99.0	3.22	1.31
	근무환경의 불량	412	100.0	3.34	1.29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지위 불만	412	100.0	3.03	1.20
전 체			3.20	1.04	

(표 4) 직종과 연령에 따른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인지

독립변인	집 단	부부관계		자녀와의관계		가사부담문제		친족과의 관계		경제적지출문제		직무문제		진 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직 종	단순노무직	3.03	1.37	AB	3.12	1.40	A	2.63	1.20	C	2.03	0.71	C	3.83	0.75	A	2.85	0.66	BC
	서비스직	3.32	1.24	A	3.07	1.26	A	3.12	1.16	B	2.66	1.05	B	3.77	1.95	A	3.18	0.76	A
	판매직	2.78	1.29	BC	2.89	1.19	AB	3.34	1.04	AB	3.33	0.81	A	3.31	1.09	B	3.09	0.68	A
	사무직	2.82	1.14	BC	2.60	1.11	BC	3.54	0.93	A	3.00	0.77	A	3.02	0.93	B	2.03	0.74	AB
	전문·관리직	2.41	1.02	C	2.38	1.15	C	3.30	1.09	AB	2.57	0.87	A	2.59	0.91	C	2.70	0.69	C
F		6.58***		5.55***		6.60***		5.93***		29.77***		23.96***		6.46***					
연 령	20 대	2.48	1.40	B	1.46	0.82	B	3.07	1.00	AB	2.67	1.34		3.24	0.92		2.54	0.59	B
	30 대	2.74	1.12	AB	2.81	1.09	A	3.43	1.07	A	3.01	1.18		3.08	1.07		3.02	0.68	A
	40 대	3.01	1.17	A	3.05	1.15	A	3.26	1.09	AB	2.94	1.26		3.34	1.03		3.08	0.76	A
	50 대	2.93	1.35	A	3.02	1.33	A	3.01	1.21	B	2.86	1.33		3.13	1.08		2.95	0.77	A
	F		2.83	1.22	2.75	1.23	2.72*		2.92	1.25	1.02		6.15***		3.20	1.04		2.90	0.73
전 체		3.02*		28.57***		2.72*		1.02		6.15***		1.64		8.18***					

D = Duncan's * P < .05 ** P < .01 *** P < .001

문·관리직의 취업부인이 가장 높게 스트레스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무문제에 있어서는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직, 판매직 및 사무직,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 순으로 스트레스원 인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원 인지는 서비스직, 판매직 및 사무직의 취업부인이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직 및 판매직의 취업부인이 다른 직종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량이 많고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은 취업에 대한 배우자의 지원, 취업동기, 직무만족도등이 다른 직종의 부인에 비하여 높으므로 스트레스량이 적다는 선행연구(이평수 1984)와 일치한다.

② 연 령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원 인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하위영역 별로는 친족과의 관계, 직무문제를 제외한 4요인, 즉 부부관계(P<.05), 가사부담문제(P<.05), 자녀와의 관계(P<.001), 경제적 지출문제(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부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40대, 50대의 취업부인이, 자녀와의 관계는 30대, 40대 및 50대의 취업부인이 20대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가사부담 문제는 30대의 취업부인이 50대의 취업부인에 비해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았으며, 경제적 지출문제는 30대의 취업부인이 다른 20대, 40대, 50대의 취업부인보다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스트레스원 인지는 30대, 40대, 50대의 취업부인이 20대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30, 40, 50대의 취업부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가 높은 이유는 국교이상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취업부인은 자녀의 교육성장 및 진학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20대 취업부인은 아직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상 20대 취업부인은 사무직, 전문직등의 고학력자로 어머니 역할에 큰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 직종과 연령에 따른 내외통제성

〈연구문제 3〉을 규명하는 〈표 5〉에서, 직종에 따른 내외통제성은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내외통제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에서 보다 중년기, 노년기에서 내외통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는 없

으나 취업부인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타인에 의존하는 외적통제성인 경향보다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적통제성이 강한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강한 자아의식을 보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직종과 연령에 따른 디스트레스

직종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 디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표 6〉에서 직종에 따라 신체적 디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두 유

〈표 5〉 직종과 연령에 따른 내외통제성

독립변인	집 단	평 균	SD	검 증	Duncan's
직 종	단순노무직	.55	.16	F = 2.29	
	서비스직	.55	.15		
	판매직	.55	.13		
	사무직	.60	.16		
	전문·관리직	.59	.16		
연 령	20 대	.60	.14	F = 5.45**	A
	30 대	.60	.16		A
	40 대	.56	.15		AB
	50 대	.52	.14		B
전 체		.57	.15		

** P < .01

〈표 6〉 연령과 직종에 따른 디스트레스

독립변인	집 단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평 균	SD	검 증	D	평 균	SD	검 증	D
직 종	단순노무직	3.80	.73	F=13.97***	A	3.49	.87	F = 6.7***	A
	서비스직	3.81	.81		A	3.18	.88		BC
	판매직	3.54	.87		A	3.30	.92		AB
	사무직	3.09	.91		B	2.99	.88		CD
	전문관리직	3.15	.91		B	2.83	.76		D
연 령	20 대	3.21	.74	F=10.37***	B	3.04	.74	F = 3.34*	B
	30 대	3.18	.88		B	2.96	.88		B
	40 대	3.55	.86		A	3.18	.89		AB
	50 대	3.80	.85		A	3.34	.93		A
전 체		3.41	.88			3.10	.88		

* P < .05

*** P < .001

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또한 취업부인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디스트레스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비하여 높게 자각하고 있었으며,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판매직의 취업부인이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 역시 단순노무직, 판매직의 취업부인이 사무직이나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영철과 동료들의 연구(1989)에서 남자의 경우는 신체적 디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모두 서비스직과 생산직 근로자가 높았으며, 반면 여성은 서비스직과 전문·관리직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서비스직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높게 자각하는 것은 서비스직의 취업여성은 교육 및 경제수준이 낮을 뿐더러 작업환경이나 직업의 특성이 다른 직종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불리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디스트레스의 경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디스트레스($P<.05$)와 신체적 디스트레스($P<.001$) 두 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40대, 50대의 취업부인이 20대, 30대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높았으며, 심리적 디스트레스도 50대의 취업부인이 20대, 30대의 취업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50대의 취업부인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신체적 디스트레스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낮다는 선행연구(김영철, 이시형, 정향균 1989)와는 완전히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는 50대의 취업부인의 경우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의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내외통제성과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내외통제성과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외통제성에 따라 신체적 디스트레스($P<.001$), 심리적 디스트레스($P<.01$)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표 7>을 보면 외적통제성 일수록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이 내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우울, 불안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제시한 많은 선행연구(Watson & Baumei 1967 : Johnson & Sarason 1978 : Kobasa 1979 : Lefcourt, Miller, Ware, Sherk 198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3.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 연령, 스트레스源, 내외통제성의 독립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있어 독립변인간의 피어슨 적률상관 관계수는 .7이하로 비교적 낮아 상호독립적 이었으며, 이때 <연구문제 5>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5%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변인들만 선정할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같이 취업부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종($\beta = -.28$), 연령($\beta = .18$), 부부관계($\beta = .14$), 가사부담 문제($\beta =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직종이 전문·관리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갈수록 신체적 디스트레

<표 7> 내외통제성과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변 인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내외통제성	-.19***	-.17***

** P <.01 ***P <.001

〈표 8〉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디스트레스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Partial R ²	R ²	회귀상수	R ²	F
신체적 디스트레스	직종	-.18	-.28	.10	.10	2.20	.19	*** 24.55
	부부관계	.10	.14	.04	.14			
	연령	.18	.18	.03	.17			
	가사부담문제	.11	.14	.01	.19			
심리적 디스트레스	부부관계	.11	.16	.12	.12	2.32	.20	*** 20.89
	자녀와의 관계	.09	.13	.03	.16			
	직종	-.11	-.17	.01	.17			
	친족과의 관계	.08	.12	.01	.19			
	가사부담 문제	.09	.11	.01	.20			

*** P < .001

스가 높으며, 부부관계와 가사부담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원의 인지가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높아짐이 밝혀졌다. 이들 4개 변인에 의하여 취업부인의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19%가 설명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종 ($\beta = -.17$), 부부관계 ($\beta = .16$), 자녀와의 관계 ($\beta = .13$), 친족과의 관계 ($\beta = .12$), 가사부담문제 ($\beta = .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가사부담문제의 스트레스원 인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직종이 전문·관리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갈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높았다. 이들 변인에 의하여 취업부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20%가 설명되고 있다.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결과에서, 신체적 디스트레스는 거의 직종에 의해 설명되고 (10%),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의해 (12%)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내외통제성은 디스트레스에 이들변인에 비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내외통제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나 그 부적응이 감소되며 내외통제성은 스트레스의 완충효과를 나타낸다는 많은 선행연구

(백기청 1987 : Watson & Baumel 1967 : Johnson & Sarason 1978 : Kobasa 1979 : Lefcourt, Miller, Ware, Sherk 1981)와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며 내외통제성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에 있어 개인의 성격이나 대처방식등에 따라 그 적용이 완화됨을 볼 때 비록 본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이라는 성격변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용한 변인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부인의 33문항의 역할갈등을 수반하는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는 보통 수준 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이해부족, 가사부담, 양가부모님의 취업중단, 경제적 지출, 직업생활에서 겪는 생활사건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부인의 직종과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원 인지,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통제성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순노무직, 서비스직등의 하위직에 종사하는 취업부인은 전문·관리직의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은 취업부인은 연령이 낮은 취업부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원 인지, 신체적 디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취업부인은 전반적으로 내적통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연령이 낮은 취업부인은 연령이 높은 취업부인에 비하여 더 내적통제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세째, 취업부인의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 보면, 신체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종, 연령, 부부관계, 가사부담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약 19%였다.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경우는 직종,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가사부담문제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약 20%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부인의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일관성이 없는 관점으로 어느 한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는데는 무리가 따르고 표집대상선정에 있어 몇가지 직업에 치우쳐 있는 점등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고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부인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귀가 후의 과중한 가사부담과 가사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 교통비의 과다한 지출, 근무환경, 보상체계 불만과 출·퇴근시간, 휴가부족으로 인한 불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인지되고 있었다. 이는 취업부인에 대한 가족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보상체계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취업부인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 가족의 협조하에서 가사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능력에 따른 승진과 보상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부인 자신의 적절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안 개발과 순적응이 필요하겠다.

둘째, 직종이 전문·관리직인 경우에 비하여 단순노무직, 서비스직등의 취업부인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직종이 가진 작업환경, 특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노무직, 서비스직등의 하위직에 종사하는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적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카운셀링 등으로 이들의 부적응을 낮출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째,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탐색을 통하여 취업부인에게 있어 신체적,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종, 부부관계 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취업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직종의 변인을 고려하여 각 직종에 따른 세분화된 직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아울러 다양한 부부유형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결론과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질문지를 보완하여 취업부인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더욱 다양하게 포함하는 표준화된 척도가 개발 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부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하는 세분화된 직종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취업부인의 직종과 함께 교육, 소득수준을 포함한 계층별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취업부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권경희(1985).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 2)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대석사논문.
- 3) 김설자(1984). 스트레스 생활사건, 통제위 성격 및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연구. 연대석사논문.
- 4)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1989). 일반생활에서의 생

- 활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4-289.
- 5) 김정숙(1988). 기혼 여교사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논문.
 - 6) 김창수, 정성덕(1989). 불안, 우울 통합척도의 임상적 적용. 신경정신의학. 28(6), 1000-1009.
 - 7) 김현수(1991). 직무만족과 작업오류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지각과 대외통제성향의 중재. 중대박사논문.
 - 8) 문치구(1987). 초, 중등교사들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석사논문.
 - 9)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 10)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장생활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1) 이종목(1990).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공변구조모형. 고대박사논문.
 - 12)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대박사논문.
 - 13)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의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4.
 - 14) 정민자(1983).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 15)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 16)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박사.
 - 17) 홍두승(1984).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 사회의 전통과 문화 서울 : 범문사.
 - 18) Bell, N.J.(1977).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Wellness Behavior. Nursing Research. Vol. 26, No. 2, 136-141.
 - 19) Davey, A. J. & Paolucci, B. (1988). Family Interaction : A Study of Schar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Vol. 29, 103-132.
 - 20) Foster, A. C. & Merzen, E. J. (1981). The Impact of Wife's Employment and Earnings on Family Net Worth Accumulation.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5, 24-30.
 - 21) Gilmor, T. M. (1978). Locus of Control as a Mediator of Adaptiv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nadian Psychological Review, vol. 19, No. 1, 1-26.
 - 22) Gore, S & Eckenrode, J.,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 Plenum Press, 1989.
 - 23) Houseknecht, S. V., Vaughan, S. & Macke, A. S. (1984). Marital Disruption among Professional Women : The Timing of career and Family Events. Social Problems, Vol. 31, No. 3, 26-30.
 - 24) Ivancevich, J. M. & Matteson, M. T. (1980). Stress and Work, London : Scot Foresman Co.
 - 25) Johnson, J. G. & Sarason, I. G. (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s. J.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22, 205-208.
 - 26) Kessler, R. C. & McCrae, J. A. Jr. (1982) The Effects of Wives Employment on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200-219.
 - 27)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 An Inquiry into Hardin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1-11.